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버이 주일 메시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중국의 작가 탄저웨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을 저술했는데 그곳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곱 식구는 아버지의 얇은 월급봉투로 근근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입에는 항상 욕으로 만든 파이프를 물고 계셨습니다. 그 파이프는 꽤 값비싼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무엇보다 그걸 아끼셨습니다. 그가 명문 베이징 대학에 합격하던 날 아버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비걱정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돈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파이프를 팔아 아들의 등록비에 보탠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는 졸업과 함께 그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고 20년 뒤에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든 번째 생일날, 그는 아버지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포장지 속에 또 포장지, 그 속에 또 포장지... 한참을 벗기자 손바닥 만한 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장난꾸러기”라며 연신 너털웃음을 터뜨리던 아버지가 마지막 상자 속을 들여다보시더니 석고상처럼 굳어버리셨습니다. 옆에서 보시던 어머니도 대경실색하셨습니다.

“아니... 이걸 당신 파이프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파이프를 1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전국의 골동품상을 다 뒤졌죠.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져간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넓고 높을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땅한 일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상처 받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창조 의 최후의 걸작품인 가정이 낙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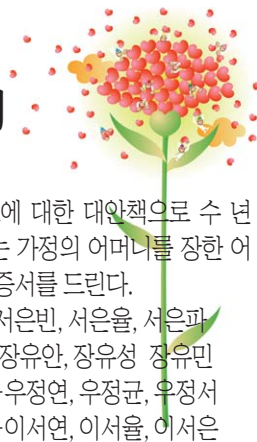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오늘은 아버지 주일

주일예배 시작 전 - 카네이션 달아드리며 찬양예배 시간 - 장한 어머니상 시상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1부 예배시간- 중등부, 2부 예배시간- 고등부, 3부 예배시간- 대학부에서 달아드리며 이 꽃은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2개월여에 걸쳐서 정성껏 만든 것이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 교

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 년 전부터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정의 어머니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교육보험증서를 드린다.

- 6교구 진현미(서동욱)-서은빈, 서은울, 서은과
- 8교구 이경옥(장윤식)-장유안, 장유성, 장유민
- 11교구 송지윤(우도현)-우정연, 우정균, 우정서
- 13교구 이정민(이상엽)-이서연, 이서울, 이서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8]

(문 43) 나병(한센씨병)이 옷(레13:47-59)이나 집(레14:33-57)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 오늘날, 한센씨 병으로 알려진 나병은 히브리어로 사라아트(sara'at)로 불리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피부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레13:2-42에 의하면 환부의 털이 희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지면 나병이라 했습니다. 6절에서는 피부병과 나병의 구별을 하였고 24절에는 화상으로부터 생긴 나병과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옴도 나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사라아트(sara'at)는 어떤 피부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시이는 성전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역하26:19-20) 유다왕 아사라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왕하15:5)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로 나타난 것입니다. 레13:47,59에 의하면 의복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나타난 나병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피부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옷감이나 의복 또는 가죽에 곰팡이나 균이 침투한 것은 피부에 침투한 것과 동일시 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푸르거나 붉은 색의 곰팡이가 된 의복을 세탁할 것, 부분적으로 절단할 것 그리고 조각할 것을 구분하는데 그 표준은 얼마나 퍼져있는지 즉 만연성 여하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레14:33-57에 가죽에 나타난 나병의 결레법은 의복이나 인체의 나병법에 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할 때를 위한 법으로 색깔 있는 돌을 빼내거나 집안 사방을 긁어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색깔이 재발하면 그 집을 헐고 돌과 재목과 흙을 성 밖에 내어버리라 했습니다.

이 같은 나병옷이나 나병집을 버리거나 불태우는 것에는 거기에 한 주 또는 두 주 동안 기다리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다가 버리거나 불태우게 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오늘 찬양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실시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투표용지 교환권 수령하도록-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3층)에서 제11대 장로 10명, 제12대 안수집사 50명, 제11대 권사 70명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한다.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 개종 포함)이면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장로는 전체 투표자의 2/3,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에 피택되며 장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피택된 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1,2,3부 각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각 교구목사 담당 교구별로 투표자격 확인과 함께 투표용지 교환권을 배부하니 위 자격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모두 이를 수령하기 바란다.

투표자격 확인과 교환권 배부는 찬양예배 직전까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다.

2012년 상반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 은혜중에 마쳐

- 찬양예배 시 수료식 -

2012년 상반기 서울 성경대학 및 열린 프로그램이 은혜중에 종강하였다. 다음은 수료자 명단이다.

마가복음(22)

김숙영2 김옥순 김정재 김홍숙 박성희3 박순복 박혜선1 박화실 서양지 송행희 오혜경 우승희 유인순 윤종희 이경실 이은희4 장미란 장성자1 최종금 최희경 황선욱1 황영숙

느헤미야(8)

강신행 김도훈 김정숙7 박석현 박인자1 손용문 유선희 최진경

성경통독반(77)

강신행 강현숙 권명희 권방원 권은주 권진순 김경희10 김경희14 김고은 김미숙7 김성민 김수자 김숙경1 김숙영2 김영숙3 김완수 김유정4 김인숙2 김인영2 김정숙3 김지희2 김현영3 김홍숙 박계진 박길자 박명애 박복순1 박윤옥 박은연 박인자1 박정순1 박현영 박화실 백건희 백미현 서단옥 송국민 송행희 양득훈 오정숙 유지은 윤소영2 윤정선 윤혜련 이경란2 이미혜 이선순 이옥희2 이용식2 이윤진1 이은미2 이인보 이인숙4 이정연1 이정희 이정희7 이해경 이해주12 이효정 인계선 임애연 장미란 전미애1 정부순 정호진 조정옥 진선자 차경은 채형숙 한미희 한은경 한효숙 허주란 현승희 황금선 황영숙 황현숙

교사양성반(11)

갈수록행복 강신행 금병희 김민철2 김소록 김영화4 김혜진4 노종철 박성신 송인수이신영1 이윤진1 이진영 이해진7 장호립 정동인 정상준 최경미 최위춘 한상희 한진수

교구일꾼양성반(2)

김형상, 박혜정3

결혼예비학교(4)

김국진 박정현2 이민광 원혜리

주부대학(12)

김경진1 김미선3 김수원 김홍숙 나은숙 송행희 오혜경 유순자 이은옥 이인숙2 조정란 조정옥

살롬경로대학(51)

고영숙 권정애 김경철 김기순 김길자 김선자3 김소복 김자경1 김혜경 김희자 나옥녀 박경희 박두영 박영숙1 백명자1 백영숙1 서귀용 소정부 송영애 송옥혜 신종건 심상덕 심영숙 안찬희 안희창 양옥자 우선자 원명희 유복달 유순자 이민화 이부자 이순례 이춘자 전인화 전행자 정병무 정봉금 정애신 조화자 진경자 최무순 최봉애 최예봉 전용순 최정옥 최향봉 최화옥 한경숙 홍광숙 황성연

선교대학(22)

김규태 김금준 김민선 김옥순 김일두 김정재 김태욱 남상경 박광일 박윤혜 박진아1 소윤경 송인권 송행희 우승희 유문건 윤명구 윤정일 이영기 이영자 이우리 현승희 권소희

요꼬마기베학교(18)

공정환 권세희 권예지 김중혁 김진오 노윤 노진철 박동하 성에나 손예은1 오주연 이민석 이승현 이예은1 이희엘 전해성 정우성 정혜리1

영여성경(11)

김명은 김범필 김중필1 김진성 김현영3 박정민6 신현일 신혜식 우미란 이재덕 정수근

서울음악교실(24)

강명진 김만운 김소영2 김준서 김태욱 김희수2 남경혜 류명열 박은미2 방승희 선혜영 송송이 송훈 오세백 이영애 이은상2 임근수 임종태 임현식 정인석 조경숙3 차원대 차준형 홍진경

금요 기도회, 특강



5월 18일 금요기도회에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한다. 김동환 목사는 2000년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였다.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다니엘 리더스 스쿨 교목으로 사역 중이다.
- 2003년 제1회 촛불상 수상

표준주석 출간 감사예배

5. 18(금) 오전 11시 - 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편찬위원장 : 이종운 목사) 출간 감사예배를 5월 18일(금) 오전 11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린다.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한가족 잔치 은혜중에 진행 중

교구별 한마음 한가족 잔치가 은혜 중에 진행 되고 있다. 이미 1, 8, 9, 10, 12, 13, 15, 16교구가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마쳤으며 금주는 2, 3, 4, 7, 14교구가 19일(토)에 각 지정 장소에서 열린다. 2, 3, 4 교구는 베델하우스, 7교구는 태안 천리안수목원에서, 14교구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2012년 공동의회에 즈음하여

김광신 장로(12교구)

기본이 짝 찬 속이 있는 그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혼자 하신 적이 없으시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기에 행복해야 하고 더욱 감사해야 한다.

문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서투르고 내 맘대로이고 잘못된 일이 다반사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더욱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교회의 일꾼 된 자가 어린 아이에게 칼을 맡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 저기 찔러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실수 때문에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는가.

근시안적이어서 자기 부서만 강조하고 전체 속의 조화를 기낼 줄 몰라서 찢찢매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프고 슬프기까지하다.

편모슬하에서 자란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에게 교회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에 충만해야 한다. 내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무엇이든지 표현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하나도 안보이게 말이다.

베드로의 AD와 BC가 어떻게 달랐는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가 BC이고 순교했을 때가 AD 아닌가. 사역의 차이가 보이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도록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이 요구되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에서 자기 성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된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기영합의 사람은 이런 경험을 모른다. 평생을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속이 짝 찬 자가 되어 주의 일을 맡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온 교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본다.

나의 하나님 - 그리운 나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박권준 집사(1교구)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저희들과 이별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지 벌써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지난 연말 갑자기 쓰러지신 후 입원, 퇴원, 재입원, 수술, 내과 중환자실, 전원, 외과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중환자실을 거친 3개월의 고통스러운 병원생활을 마치고, 봄같이 따뜻한 겨울의 끝자락에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는 미련한 저희 자식들에게 정말로 속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신이 힘드실까 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당신은 분명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수술 전날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과 같이 한 예배에서 시편 34:6-22절을 읽으시던 당신의 목소리가 작으면서도 힘이 있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하려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본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운명하시기 일주일 전 저녁 제가 병상에서 기도를 마치자 눈을 뜨시고 저희들을 쳐다보시던 당신의 평안한 눈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길은 당신의 평생동안의 저희들을 향한 넘치는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큰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평안한 눈길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눈길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병실 밖에서 비추던 따뜻했던 햇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햇살을 타고 아버지는 천

국에 가셨습니다.

너무도 큰 사랑이셨기에 남겨진 저희들에게는 당신 없는 빈자리가 또한 크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당신을 만납니다. 어제는 아버지께서 자주 가시던 대학로 식당의 주인할머니가, 오늘은 영등포 부품상가의 깍쟁이주인이, 제가 출근하여 앉는 의자가, 제가 매일 매일 결정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머니가 가꾸시는 성북동 꽃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막내동생이 모두 당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바다와 산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늘 간직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저희들도 베푸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아버지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마치고, 다시 뵈 때까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서연아!



한주의 성도 (12교구)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고, 직장생활을 겸해야 하는 엄마에게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태어나 엄마와 아빠, 이 세상과의 첫 만남이 기쁨과 희열 속에 이뤄졌으면 하는 소원을 기도제목으로 올려놓고 기도를 했었다.

서연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의 소원인 서연이를 이 땅에, 우리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태어난 지 50일에 영아부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유아세례도 받게 하시고, 첫 돌이 지나 유아부에 등록하여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서연이가 있게 해주셨다.

잠투정, 밥투정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며, 서툰 엄마의 부족함을 알아서 때워 주는 어린 서연

이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단다.

5달 전에는 남동생 연우까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정의 달인 5월에, 이 푸르른 날에, 더 큰 감사로 나가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마음을 담아 소원을 드리지.

사랑하는 서연아,

엄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라주는 서연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친구들과 사이 좋게 어울릴 줄 알며, 따뜻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서연이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사는 서연이를 그려볼게..

사랑해 서연아~

엄마가

한마음 한가족잔치를 준비하며

정미연 권사(14교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는 14교구(개포, 일원, 포이, 수서 지역) 한마음 한가족 잔치가 5월 19일(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양재 시민의 숲"에서 열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편 1절) 주님의 말씀에 따

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웃고, 뛰고, 달리며, 안아주고 품어주는 귀한 사랑의 잔치로 가질 예정입니다. 양재천을 따라 서초동 방향으로 오시다가 시민의 숲으로 들어오셔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서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 출발합니다. 우리 교구는 교회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 14교구에 속한 가족들과 아직까지 다락방에 잘 참석하지 못하였던 성도

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교구 식구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을 실천할 통로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된 자연동산에서 꽃도 보고 나무도 즐기며 맛있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맘으로 하나가 되어 서울교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소중한 시간에 14교구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춘계 연합 야외예배

-소망부, 아브라함, 사라, 샬롬, 은빛찬양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7일(목)에 소망부,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여전도회, 샬롬 권사회, 은빛찬양대가 연합으로 야외예배를 드린다. 이번 연합 야외예배는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님께서 아버지날에 즈음하여 교회 어르신들을 대접하고자 자택으로 초청하여 남양주시 베델하우스에서 갖게 된다. 출발은 교회에서 10시 정각에 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5일(화) 한국기독교학술원 연구교수 면전을 한다. 17일(목) 장로교일교단단체제 헌법시안위원회를 소집한다. 17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4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8일(금) 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기념 표준주석출판 감사예배를 드린다. 19일(토) 종교개혁500주년 월례기도회를 소집한다.

- 운전기사 모집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세례교인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를 사무국으로 제출
- 전시회 : 3교구 김연옥 권사(초대작가) 한중일 국제교류전 5/16(수)-22(화) 예술의 전당
- 득녀 : 7교구 이신명 집사 김민정 성도가정
- 주간식당 봉사 : 제2스테반회(5.13) 제1권사회(5.20)
- 금주의 식사 : 김은희 집사, 김혜연, 박은영 집사 가정 (어머니 생신을 감사드리며) 교회제공

한마음 한가족잔치를 마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조희 집사(12교구)

9, 10, 12교구 한마음 한가족 잔치가 남양주에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하우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구별 한마음 한가족 잔치로 인해 서로 더욱 가깝게 인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맨앞으로 모두들 나와 적극적으로 게임하고 밝게 웃는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일정과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음식과 모든 일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들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가족 잔치로 인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고, 다락방 모임이 더욱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호산나대학 학생회 자원봉사 활동

호산나대학 학생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란 주제로 가평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화) - 9일(수) (2일간)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8일(화) 청평면에 소재한 이레오양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 달아주기, 쿠키나누기, 장기자랑, 주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으며, 또한 5월 9일(수)에는 청평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 댁의 도배, 페인트칠, 꽃심기, 주변 청소 등의 자원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서울교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자라는 비전에 호산나 대학도 함께 동참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봉사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석 성도 (호산나 대학 교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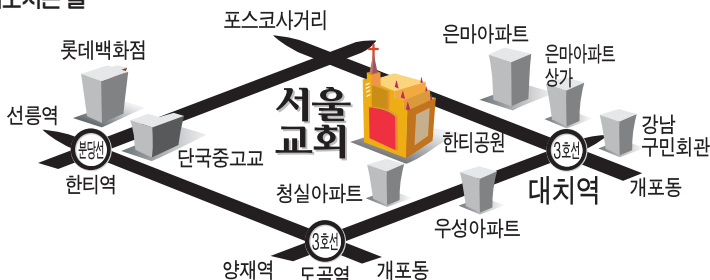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창조된 일꾼들이 세움을 받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2.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3. 금요기도회에 초청되는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님의 간증과 특강을 통해 자녀들이 공부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